

# KIA 수도권 9연전 시작... '1위 싸움' 중대 고비



오늘 잠실 LG전·SK·kt 차례로 만나...금요일 '5승8패' 열세 극복 과제

‘진짜 순위’ 싸움이 시작된다. ‘호랑이 군단’의 명운이 걸린 원정 9연전이다.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3연전을 치른 KIA 타이거즈가 잠실로 떠났다. 30일부터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이어 문학으로 이동해 7월 4~6일 SK 와이번스를 상대한다. 그리고 7월 7-9일에는 kt 위즈와의 원정경기가 예정됐다. 잠실-문학-수원으로 이어지는 원정 9연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수도권 9연전을 앞두고 김기태 감독은 나름의 준비를 했다. 앞선 수도권 9연전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다. KIA는 지난해 수도권 9연전에서 바로 한 경기를 쉬고 4승4

를 남겼다. 5할 승률은 기록했지만 고척 싸움이 3연패의 충격이 컸다. 앞선 2015년의 기억은 더 좋지 않다. 수도권 9연전에서 1승8패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9연전, 여기에 지난 주말 NC 다이노스에 3연패를 당하면서 순위 싸움의 분위기도 긴박해졌다.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 김 감독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컨디션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라는 주문을 했다. 특별경기도 치렀다. 지난 27일 김호령, 김지성, 최원준은 훈련에 앞서 합평 켈린저스 필드를 다녀왔다. 실전이 부족한 벤치 멤버들의 경기력 저하를 우려해 kt와의 3군 경기를 뛰도록 한 것이다. 홈경기과 달리 훈련량이 부족한 원정 경

기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점도 고려된 특별 경기였다. 또 이날 김 감독은 앞선 원전을 깨고 반바지 차림의 훈련을 허용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초점을 맞췄다. 29일에는 엔트리 변동으로 변화를 줬다. 좌완 박경태를 내리고 있던 난조로 2군행을 자처했던 임창용을 불러들이며 불펜진을 정비했다. 또 이날 임창용과 함께 새 얼굴도 보였다. 내야수 최정민과 투수 이민우가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최정민은 지난 4월 SK에서 트레이드되어 온 자원으로 부상 때문에 시즌 출발이 늦어졌다. 이민우는 2015년 KIA의 우선 지명을 받은 투수로 팔꿈치 수술 후 큰 복무를 하느라 지난 4월에야 정식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

한 중고 신인이다. 두 사람의 훈련을 꼼꼼하게 살핀 김 감독은 “원정 9연전 때문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해서 선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불렀다”고 두 사람의 등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감독은 새 인물까지 점검하면서 9연전을 기점으로 전개될 치열한 순위 싸움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여기에 ‘장마’라는 변수까지 있어서 김 감독의 머리는 복잡하다. 반반의 준비를 하고 떠나는 원정 9연전. 일단 30일부터 잡아야 한다. ‘화요일타이거즈’로 한 주를 열었지만 금요일이 고비다. 10승1패의 화요일과 달리 KIA는 금요일 7연패 중이다. 5승8패라는 금요일 열세 만회로 주말 3연전을 여는 게 원정 9연전 길에 오른 KIA의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12연승 기록’ 조계현 “하다 보니까 됐다”

### 덕아웃 T 특특

▲하다 보니까 됐다  
하다 보니까 12연승을 달리게 됐다는 조계현 수석 코치. 헛터는 지난 28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올 시즌 12연승을 내달렸다. 앞서 타이거즈에서는 조계현 수석코치가 1996년 12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다. 조 수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면서도 “나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투수는 아무리 잘해봤자 비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야수들의 몫이다”며 동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승운이란 것

도 투수들의 몫이다.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마조마하면 이길 수가 없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며 왕년의 ‘싸움닭’다운 발언을 했다. ▲공포도 놀랐어요  
뒤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잠깐 놀랐던 송구다. 지난 28일 삼성과의 경기. 1회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다. 1사에서 3루타를 치고 나간 김주찬이 베나디나의 1루수 땅볼 때 스타트를 끊었다. 1루수가 홈 송구를 선택했고, 점전 상황에서 김주찬의 발이 먼저 홈플레이트에 닿으면서 셰이프가 선언했다.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야구공이 홈플레이트 근처에 떨어져 있던 상

황. 1루에 있던 베나디나가 2루를 지나 3루로 향했고 포수 이지영이 마술이라도 하듯 미드에서 공을 빼 3루로 송구했다. 공 두 개가 동시에 그라운드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내용은 이렇다. 주심이 판정을 위해 급히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볼 주머니에 있던 공 하나가 빠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주찬이 홈에 들어오던 순간과 공이 떨어진 순간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홈 충돌과정에서 미드에 있던 공이 빠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1루에 있던 베나디나도 공이 뒤로 빠졌다고 판단해 3루까지 뛴 것이다. 결과는 포수 이지영의 악송구로 해피엔딩. 베나디나는 “공이 빠져있어서 뛰었는데 포수가 갑자기 공을 꺼내 던져서 당황했다”며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는 안 잡았을 거야  
김기태 감독을 움찔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28일 ‘캡틴’ 김주찬은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하나 부족한 맹활약을 했다. 이날 첫 타석에서부터 3루타를 때린 김주찬은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2루타 그리고 5회와 7회에는 1루타를 기록했다. 그리고 김주찬은 홈런 하나 남은 상황에서 8회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다. 김주찬의 방망이가 돌아가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하지만 답장을 넘어가는 것 같던 타구가 펜스를 맞고 떨어지면서 경기장에는 이내 아쉬운 탄성이 가득했다. 김 감독은 “맞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아마 (카메라가) 공을 잡는다고 나를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이 밀렸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신지에 美 나들이 내달 US여자오픈 출전

29일(이하 한국시간) 밤에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여자PGA 챔피언십 출전 선수 명단에는 신지에의 이름이 들어있다. 신지에에는 29일 밤 10시30분 최은정, 모 마틴(미국)과 1번홀서 티오프한다. 신지에에는 2014년 LPGA 투어카드를 받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제2의 골프 인생을 살고 있다. 신지에에는 2015년부터 미국엔 발길을 끊었다. 작년에 호주여자오픈과 브리티시여자오픈,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토토 재팬 클래식에는 출전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열린 LPGA투어 대회는 일절 참가하지 않았다. 신지에가 미국 본토에서 열린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4년 4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 마지막이다. 그런 신지에가 올해 KPMG 여자PGA 챔피언십에 모습을 드러내자 놀라지는 반응이 쏟아졌다. 더구나 신지에에는 SNS에 “Hello America! I'm back”이라는 글을 올렸다. 신지에에는 지난 2015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LPGA투어가 그림자”고 말했다가 ‘LPGA투어 복귀설’이 퍼진 적이 있다.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난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와전됐다”고 해명했던 신지에에는 이번 미국 원정 역시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신지에에는 미국에 건너온 김에 US여자오픈까지 출전할 계획이다. 이미 출전 신청도 했다. US여자오픈은 다음 달 14일 뉴욕 인근에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 SF 황재균 ML 데뷔전서 결승 홈런...수훈선수로

# 통렬 6회의 희비 통한

## LA 류현진, 5.2이닝 무실점하다 투런포 허용...4승 실패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서 6회말 샌프란시스코의 황재균이 솔로 홈런을 쳐낸 뒤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 데뷔전에서 결승 홈런을 터뜨린 황재균의 활약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에 5-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경기에서 4회말 다저스의 류현진이 상대팀의 앤드렐튼 시몬스의 타구에 발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6회말 시몬스에 2점 홈런을 허용했으며, 팀 다저스는 에인절스에 2-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마이내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던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기적처럼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데뷔전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다. 황재균은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5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6회 솔로 아치를 그렸다. 3-3으로 동점인 6회말에 빅리그 개인 첫 안타를 신고했는데, 그것이 홈런이었다. 2사에서 타석에 들어선 황재균은 상대 좌완 선발 카일 프리랜드의 시속 145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좌중월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135m에 이르는 대형 홈런이었다. 그간의 수모와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통쾌한 홈런포였다. 결승 홈런을 쳐낸 황재균은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했다.

황재균은 2015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지만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무응찰의 아픔을 겪었다. 주변에선 그런 황재균을 비웃었다. 실제로 황재균은 장타력은 물론 정교함, 수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그래도 황재균은 굴하지 않고, 이유를 파고들었다.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그의 백스윙 궤적이 길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곧바로 수정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은 황재균은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쇼케이스를 펼쳤지만, 관심을 보인 구단

은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유일했다. 제시 받은 계약 조건도 스플릿 계약이었지만 황재균은 그마저도 감수했다. 황재균은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하고 마이내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승격 통보를 받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황재균은 아웃아웃(잔여 연봉 등을 포기하고 FA를 선언하는 것)을 행사해 팀을 떠날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일어났다. 황재균은 전날 빅리그 행을 통보받았고, 이날 빅리그 첫 경기에서 홈런을 쳐내며 자신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벅찬 하루를 맞았다. /연합뉴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호투 하기도 마지막 위기를 넘지 못해 시즌 4승 사냥(3승 6패)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9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더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5.2이닝 동안 7안타를 내주고 2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은 8개를 잡았고, 불넷은 단 한 개만 내렸다. 하지만 0-2로 뒤지던 다저스가 2-2 무승부를 만들어 류현진은 패전의 명에 벗었다. 팀은 2-3으로 졌다. 류현진은 삼자범퇴를 이어가며 올 시즌 처음으로 1·2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류현진은 3회 말 첫 타자 제프리 마르테에게 첫 안타를 맞았다. 다저스가 시프트(변형 수비)를 가동했으나, 빗맞은 공이

원래 2루수 자리로 향했다. 첫 피안타가 나온 상황은 불운했지만, 곧바로 야수의 호수비가 나왔다. 대니 에스피노사의 강한 타구를 다저스 3루수 저스틴 터너가 견어내 2루로 향하던 주자를 잡아냈다. 벤 리비어를 2루 땅볼로 처리한 류현진은 2사 2루에서 메이빈을 삼진 처리하며 무실점 이닝을 늘렸다. 4회는 더 극적이였다. 류현진은 갈흔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푸홀스를 두 타석 연속 삼진 처리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에스코바와 폴 카운트 승부를 펼치다 불넷을 허용했다. 아찔한 장면도 나왔다. 시몬스의 강한 타구가 류현진의 왼발을 맞고 내야안타가 됐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 맞은 2사 1·2루

에서 류현진은 말도나도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6회 고비는 넘지 못했다. 류현진은 선두 타자 갈흔에게 우익수 쪽 2루타를 내줬다. 푸홀스를 삼진 처리하고 에스코바를 우익수 뜬공을 잡으며 위기 탈출을 노렸다. 하지만 시몬스에게 시속 117km 커브를 던지다 좌중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0-0 균형을 이렇게 깨졌다. 류현진은 말도나도와 마르테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날 변화구 위주의 투구를 하다 최고 시속 150km까지 나온 직구를 절묘하게 쳐서 호투를 이어갔다. 하지만 통한의 시즌 15번째 홈런을 내주며 고개를 숙었다. /연합뉴스